

별을 쏘다 ☆

SUNGWOO HITECH MAGAZINE

2014. SUMMER vol.001

History of Sungwoo Hitech

성우하이텍의 어제와 오늘, 그 웅골진 역사 속으로

Healing Travel

경주, 그 끝과 끝에서 만난 여름

Challenge Sungwoo

'나'를 보태면 '우리'가 된다. 신입사원들의 고군분투기





“두근두근”

기억나세요? 낯선 곳으로 떠나기 전날, 여행 가방을 꾸리며 설렘으로 지새우던 긴 밤
노란 민들레꽃처럼 아슬아슬 새벽길을 나서면 순간순간은 어느새 추억이 되어 가슴 속에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여행은 어떻게 남아있나요?

첫사랑처럼 풋풋하고 설레던 그날도 아이처럼 강종거리던 그날도
기억의 앨범에서 꺼내 보면 아름답기만 합니다.

성우 가족의 사보 ‘별을 쏘다~☆’가 여러분과 동행하기 위해 집을 꾸렸습니다.

함께 나서는 희망과 설렘의 여행길, 가슴 가득 이야기 보따리를 안고

지금, 출발합니다!

SUNGWOO HITECH MAGAZINE

2014. SUMMER vol. 001

별을 쏘다 ☆

발행일 | 2014년 7월 31일 (통권 제1호)

발행인 | 이명근

사보기자 | 강승태, 강승호, 강현지, 김유리, 김지영, 김태우, 김태훈,
남창식, 박노실, 박상정, 박은혜, 손재경, 신민환, 안상수,
이수승, 이승욱, 정영화, 제정민, 최수영, 최용혁 (가나다순)

발행처 | 성우하이텍 www.swwhite.com (인사노무팀 T. 070-7477-5022)

기획 및 디자인 | 미디어어쥬(T. 051-623-1906)

표지 일러스트 | 전명진

02 Photo Essay
“두근 두근”

04 CEO Message
일류기업을 향해 한마음으로 전진합시다

06 Congratulatory Message
사보 발간을 축하합니다

07 Workshop
소통과 배려로 신바람 나는 일터를 일군다!

08 Field Sketch
함께 땀 흘리고 웃으며 하나 되는 성우인

12 Healing Travel
경주, 그 끝과 끝에서 만난 여름



18 현장 24시

최고의 품질 위해 장인정신으로 뭉쳤다!
성우하이텍 생산관리팀 조립3반

21 Challenge Sungwoo

'나'를 보태면 '우리'가 된다. 신입사원들의 고군분투기

24 History of Sungwoo Hitech

성우하이텍의 어제와 오늘, 그 웅골진 역사 속으로

30 그땐 그랬지

성우와 함께 한 나의 청춘별곡

32 우리는 동갑

동그란 버스 토큰을 아시나요?

34 Column

인맥은 많을수록 좋다? 성공하고 싶다면 비우고 버려라!

36 World Wide

광활한 대륙에서 성우의 기개를 펼치다
성우하이텍 북경법인 북경성우차과기유한공사

40 Here & There

북경의 골목에서 부산을 만나다

42 Book & Culture

김태일 대표이사 사장의 추천도서 '답을 내는 조직'

44 Issue & News

50 Sungwoo Campaign

SAVE ENERGY, SAVE EARTH



일류 기업을 향해 한마음으로 전진합시다!

성우하이텍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우하이텍은 1977년 창립 이후 '최고의 품질이 최선의 영업이다'라는 경영철학에 기반을 두고, '세계 최강의 자동차 차체 부품회사'라는 비전을 달성하고자 소통·관심·상생의 서로 사랑하며 아끼는 따뜻한 노사문화와 축적된 기술력으로 고객지향의 무결점 감성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1997년부터 출발한 '세계화'의 도전 속에서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과의 치열하고 냉혹한 생존경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 자동차 시장의 둔화와 원화 강세로 인한 환율하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지만 우리 성우하이텍의 무한한 저력으로 슬기롭게 이겨 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를 에워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우가족 모두가 스스로의 허물을 벗어 새롭고 활기찬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특히 구성원 모두가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도록 의사소통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자율적 한마음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관리제도의 선진화와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성우가족 여러분!

금번 창간하는 성우하이텍 사보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서 성우가족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약속하는 소통의 첫걸음이자 새로운 가치 창출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삶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우리들의 소중한 역사로 남게 되길 희망합니다.

끝으로, 사보 발간을 축하하며 성우하이텍 가족 여러분 모두의 안녕과 성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이명준

성우가족을 대변하는
참된 사보를
만듭시다.

기업문화를 비추는
거울이 되길
바랍니다.



아산성우하이텍 노조위원장 임 갑 병

성우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성우하이텍 사보 창간을 성우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옛날 봉수대에 봉화를 올려 소통의 장을 마련했듯이 사보 창간을 계기로 희망적이고 생산적인 소통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보 제호를 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기사 작성까지 전 직원의 동참을 끌어 내었기에 기대되는 바가 큼니다. 사보 내용 작성 또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기사로 활동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금번 사보가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직원의 애로사항을 담아내고, 아울러 경영의 비전과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되어 우리 성우가족 모두가 매호 사보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내용으로 채워지길 기대합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도 한 단계 더 성숙된 노사관계와 우리 성우 공동체 발전을 위해 사보 발간에 노력하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성우하이텍 노조위원장 김 근 수

성우하이텍 창립 37주년을 맞이하여 사보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회사의 발전 및 노동조합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향상 및 올바르게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과 노동이 존중 받는 아름다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금번 사보발간을 통하여 회사의 경영목표 공유와 정책실태 등을 전달함과 동시에 경영자와 직원 상호 간의 의사소통은 물론 노사 간 대화 통로로도 선도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사보가 사내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매체로서 소통의 기업문화를 만들고 가꾸어 성장시켜 나가는 구심점이 되고 또 기업문화를 담아내는 그릇이자 기업문화를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담당하여 항상 행복한 직장 문화로 자리하길 바랍니다. 깊은 계곡의 물은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보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전 직원 및 가족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므로 직원가족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사보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성우하이텍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Harmony + Communication = Harmonication

신바람 나는 일터를 일군다!

성우하이텍, 아산성우하이텍, 성우몰드의 각 관계사 공정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갓 새내기 딱지를 댄 사원부터 노련미가 진하게 묻어나는 반장까지, 그들은 책임감으로 뚫돌 뭉친 우리 회사의 공정책임자들이다.

3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매주 1박 2일의 일정으로 기장에 위치한 부산은행연수원에서 공정책임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2개월 열흘 동안 실시된 이번 워크숍에는 390여 명의 임직원이 참가했다.

워크숍은 화합(Harmony)과 소통(Communication)을 결합시킨 'Harmonication(상생)'을 주제로 비전과 인식, 그리고 행동을 통합하여 'ONE 성우하이텍'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짜여졌다. 참가자들은 '열정과 도전으로 역경 극복하기', '신바람 나는 일터 만들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성우인의 과제', '한마음, 한뜻', '하모니케이션(상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듣고 체험했다. 이번 워크숍 참가자 모두가 회사와 가정에 대한 책임감도 한층 더 깊어진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며, 이는 회사와 가정을 향한 '돌아봄'이며, 스스로의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것 아니겠느냐는 하나 된 감동을 들을 수 있었다. 한편, 아산지역 참가자들은 서창공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1박 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짓기도 했다. 워크숍은 '나'로부터의 작은 변화를 성우인의 가정과 일터에서 힘찬 변화로 연결할 것을 다짐하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



Field Sketch

성우하이텍 회장배 족구, 탁구, 풋살대회



열 정 + 도 전 !

함께 땀 흘리고 웃으며 하나 되는 성우인

제11회 성우하이텍 회장배
족구, 탁구, 풋살대회

성우하이텍이 뜨겁게 돌아올랐다. '2014 제11회 성우하이텍 회장배 족구, 탁구, 풋살대회'의 본선 경기가 펼쳐진 까닭이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이 대회는 노사 간의 화합을 증진하고 사업장 간 소통을 증대시켜 자율적 한마음 경영을 이루기 위한 성우하이텍의 상반기 큰 잔치이다.

본선에 오른 족구 8개 팀, 탁구 8개 팀, 풋살 4개 팀 100여 명은 서창공장 5층 옥상 경기장에서 토너먼트 경기를 펼치며 자웅을 겨뤘다.

4월 7일부터 전국 사업장에서 50여 일간 예선을 치른 대장정, 그 치열한 클라이맥스 속으로 들어가 보자.



백니!

서창공장 5층 옥상 경기장. 본선 개막을 알리는 호각 소리가 울리고 이명근 회장의 힘찬 시축으로 대회는 막을 열었다. 각 소속팀과 사업장의 명예를 건 대회인 만큼 전문마저 감도는 분위기 속에서 조 추첨이 시작됐다. 각 팀 주장의 비장한 표정에서 이번 대회에서는 꼭 1등 트로피를 차지하고 말겠다는 결의가 엿보였다.



뜨거운 네트를 가르며



코트에서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가 펼쳐졌다. 족구공이 상대편 코트를 시원하게 가를 때마다 지켜보는 동료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올해는 아산생산관리팀과 아산기술팀이 다른 팀들을 물리치고 결승에서 맞붙었다. 양 진영을 심 없이 넘나드는 불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결과는 2:0으로 아산생산관리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일각에서는 아산 팀끼리 다 해먹는(?) 것이 아니냐는 질투 섞인 푸념이 들리기도 했다.

주장인 아산 조립4반 맹서영 반장은 결승에서 같은 아산지역 팀이 아닌 다른 사업장과 맞붙었다면 더 좋았을 거라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본선 경기를 위해 새벽부터 버스를 타고 달려온 아산생산관리팀이 매년 우승후보로 꼽히는 비결은 연습이다. 주간근무가 끝나도 연습, 야간근무가 끝나도 연습을 한다. 매일같이 연습하다 보니 조직력도 생기고 축구 실력은 물론 업무성과도 일취월장이다. 맹서영 반장은 우승을 이끈 공을 팀원들에게 돌리며 팀원들이 “예뻐 죽겠다!”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 속에는 그동안 노력해준 팀원들에 대한 고마움이 배어 나왔다.





핑! 팡! 치열한 용호상박의 경쟁

탁구장에 들어서자 올림픽 열기를 방불케 할 만큼 진지한 분위기였다. 그 와중에 작년 단식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서창 품질보증팀 공정QC 이창근 조장은 탁구 경기장의 분위기를 메이커로 활약하며 탁구장의 열기를 북돋았다. 콧수염이 매력적인 이창근 조장은 이번 해에는 경기 규정이 바뀌어 우승을 장담할 수 없다며 강력한 우승후보로 서창 보전팀을 지목했다. 아쉽게도 이창근 조장이 속한 서창 품질보증팀은 4위에 그쳤지만, 그의 예언 때문이었을까? 서창 보전팀과 아산영업팀의 땀이 사방으로 튀는 접전 끝에 서창 보전팀이 2:0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결승은 마치 프로 선수들의 경기를 눈앞에서 보는 착각마저 들 정도로 손에 땀을 쥐게 했다. 경기가 끝난 후 지켜본 많은 이들의 아낌없는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왔다. 우승팀인 서창 보전팀은 보전팀 정성훈 반장, 보전2팀 지용재 대리가 팀을 이루었다. 지용재 대리는 정성훈 반장은 평소에도 생활체육으로 탁구를 즐겨하는 재야의 숨은 고수라며 엄지를 추켜올렸다. 이에 정성훈 반장은 “상금으로 탁구공 하나 사주마”라며 지용재 대리의 어깨를 토닥였다. 파트너에게 한마디를 부탁하자 지용재 대리는 “많이 얻어가는 느낌이라 기본이 좋다. 반장님과 함께 내년에도 한 번 더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고, 정성훈 반장은 지용재 대리를 바라보며 “수고했다”는 한마디로 탁구공처럼 기쁨을 넘겼다.



신입사원, 출사표를 던지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기 마련. 올해 탁구 종목에 첫 출전하는 심종보 신입사원이 속한 성우몰드팀을 만나 보았다.

성우몰드 공법계획팀 오태경 대리와의 한 팀을 이루어 출전한 심종보 사원은 후견인 제도를 통해 오태경 대리와의 인연을 맺었다. 멘토와 함께 성우몰드의 탁구 대표팀으로 선출된 심종보 사원은 평소 탁구에 관심이 많아 가끔 오태경 대리와 탁구장을 찾기도 했다. 오태경 대리는 작년에 김형균 과장과 출전했지만 올해 김형균 과장의 개인 사정으로 새로운 파트너를 찾던 중, 마침 멘티인 심종보 사원이 평소 자주 탁구를 친다는 말에 파트너를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의한 것. 오태경 대리는 심종보 사원과 후견인 제도로 만났지만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 인연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심종보 사원은 “프로 선수 같은 다른 사업장 선수 분들과

겨룰 수 있어 영광이었다. 이

번에는 아쉽게 1차 토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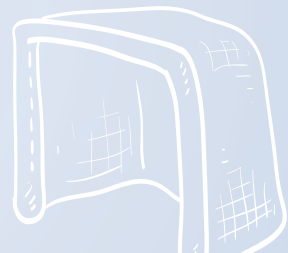
먼트에서 탈락했지

만 내년에는 실력

을 키워 우승까지

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오고가는 드리블 속에 싹트는 동료애

풋살은 예선 18개 팀 중 4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풋살장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거나 한 자리에 모여 작전회의를 하거나, 선의의 경쟁을 다짐하기도 하는 등 경기시작 전부터 선수들이 분주한 모습이었다. 풋살은 공격수, 수비수가 따로 없을 정도로 공수 전환이 빠르게 전개된다. 그래서 축구보다 더 박진감이 넘친다. “이쪽으로 패스!”, “막아! 막아!”, “아, 들어갈 뻔했는데!” 결승에 나선 아산생산관리팀과 서창 생산관리팀/조립1반/조립5반/가공1반/금형반의 숨 막히는 접전 속에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과 응원하는 사람들의 탄성과 탄식이 교차되었다. 5:0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스코어로 승리는 아산생산관리팀에게 돌아갔다. 작년에 이어 2연패를 차지한 아산생산관리팀은 아산지역의 풋살 경기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실력 있는 팀이다. 매년 아산지역의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풋살대회에서 작년에는 16개 팀 중 3위에 입상하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다. 아산생산관리팀은 주위의 다른 회사들을 초대하거나 초청을 받아 친선 경기를 하고 있다. 대회 시기가 되면 몇 개월 전부터 체계적인 훈련에 들어간다. 이때는 회사의 위계 질서에서 벗어나 친형제 같은 돈독함을 다지며 즐겁게 운동에 임한다. 눈빛만 마주쳐도 패스를 하려는지, 슈팅을 날릴 건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팀워크는 최고이다.

아산성우하이텍에는 올해 풋살 경기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임갑병 노조위원장의 의견으로 김태일 대표이사 사장이 풋살 경기장 건립을 약속한 것이다. 아산생산관리팀 풋살 주장인 정기수 사원은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사장님과 임갑병 노조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는 인사와 함께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이 장면을 멀리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 아산성우하이텍 임갑병 노조위원장과 성우하이텍 김근수 노조위원장이다. 대회에 임하는 두 노조위원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아산성우하이텍 임갑병 노조위원장 “아산성우하이텍을 대표하는 선수단이 타 사업장 선수들과 경기를 치르면서 업무에 동기부여도 되고 동료라는 일체감을 얻어가기도 한다.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직원들 사기나 업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성우하이텍 김근수 노조위원장 “모든 직원이 반갑게 볼 수 있는 행사이다. 직원들이 다치지 않고 스포츠 정신을 키우면서 동시에 업무능력도 키우는 화합의 자리이기도 하다.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고 또 응원하는 것이야말로 하나 되는 성우인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 같다.”



내년에는 더 멋진 경기가 되길

“예산부터 약 2개월가량 달려왔다. 오늘이 그 결실을 맺는 날이었다. 개인의 건강관리는 물론, 회사 업무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상호 상승의 운동 경기가 되었길 바란다. 모두 함께 웃고, 땀 흘리며, 즐기는 시간을 가진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더 멋진 경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 김태일 대표이사 사장의 폐회사와 시상식을 끝으로 이번 ‘2014 제11회 성우하이텍 회장배 족구, 탁구, 풋살대회’는 막을 내렸다. 성우가족의 화합과 단결을 유감없이 보여준 축제의 한마당. 스포츠를 통한 동료의식의 일체감은 다음과 같은 경기결과를 남기고 내년에 있을 제12회 대회를 기다리기로 했다. 🏆



경기결과



우 승 아산생산관리팀
준우승 아산기술팀
3위 서창 조립1반/조립2반/
조립3반
4위 서창 자재지원팀



우 승 서창 보전팀/보전2팀
준우승 아산영업관리팀
3위 서창 조립4반/조립5반/
가공2반
4위 서창 품질보증팀



우 승 아산생산관리팀
준우승 서창 생산관리팀/
조립1반/조립5반/
가공1반/금형반
3위 서창 조립2반/조립3반/
조립4반/가공2반
4위 코일센타팀



MVP 아산 조립1반 고병학



감투상 지사공장 권재운

경주, 그 끝과 끝에서 만난 여름



봄꽃이 피었을 때도, 단풍이 들었을 때도, 어쩌다
한 번씩 눈이 내릴 때도 경주는 참으로 아름다웠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가도 또 가도 때마다 새로워,
질리는 법이 없었다. 그 바람에 한여름의 경주는
보지 못했다. 불국사와 석굴암이 아닌 다른 경주의
얼굴 또한 본 적 없었다. 해서 여름의 경주에 갔다.
천년고도의 중심이 아닌 그 끝과 끝에 발을 디뎠다.

글쓴이 유승혜는 지난 6년간 기자와 에디터로 글을 써왔다. 현재는 여행 삼아
일 삼아 전국 곳곳에 발도장을 찍는 프리랜서 여행작가로 활동 중이다. 지은 책
으로 <섬표, 경주>, <섬표, 강릉>, <같이 오길 잘했어>가 있다.





1 양동마을 경주 손씨와 여강 이씨에 의해 15~16세기에 형성된 양반마을로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다. 2 경주 동궁과 월지 풍경의 천연함으로 말하자면 동궁과 월지 또한 압도적이다. 3 연꽃단지 드넓게 펼쳐진 연밭의 고랑을 걷다보면 불췌더위도 잊고 연꽃의 수려함에 반하게 된다. 4 경주 노동동 고분군 고분의 초록은 경주의 여름을 더욱 찬란하게 한다.



더위에 가려진 찬란한 빛깔이 이곳에

경주의 여름은 유난히 뜨겁다. ‘고개를 들지 않아도 하늘이 잘 보이는 도시’라 좋다는 말은 적어도 여름에 있어서 ‘철모를’ 소리일지도 모른다. 혹서기에는 고분 한 바퀴만 돌아도 온몸이 땀으로 젖으니 말이다.

누군가는 그랬다. 봄에는 벚꽃잔치 하러, 가을에는 가까운 하늘을 보러, 겨울은 추위를 피하러 경주에 오지만 여름만큼은 피하고 싶다고. 대구와 마찬가지로 분지 지형인 까닭에 여름이 더욱 무더운 경주는 그늘조차 드문 동네다. 애인조차 견내지 못한 삶의 위안을 천년고도에서 얻어간다면 ‘경주 예찬론자’ 또한 여름의 경주에서는 위안이 아닌 인내심을 얻어간다고 말할 정도다. 경주의 여름을 몰랐던 때, 경주 시내를 휘돌아 남상의 삼릉까지 자전거로 달렸다가 일사병까지 앓았

던 경험도 반복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여름의 경주는 유난히 아름답다는 것. 언제는 아름답지 않았던 적 있던 고장이나 마는 수많은 나날 중에서도 유독 여름은 가장 또렷하고 선명한 빛깔을 뽐어낸다. 햇볕이 뜨거운 대신 풍경은 채도를 높여 찬란함을 더하는 것이다. 경주 어디에서나 마주칠 수 있는 고분의 초록을 보면 단번에 알 수 있다. 한겨울 희뽀한 빛깔의 완만한 능선은 여름이 되면 초록의 원색으로 옷을 바꿔 입고 하늘과의 경계를 분명히 한다.

개나리와 벚꽃이 진 자리에는 붉게 꽃을 피운 배롱나무들이 존재감을 발한다. 그러므로 순색의 그림 같은 경주를 보고 싶다면 여름의 경주에 발을 디뎌야 옳다.



진흙에서 피워 올린 연꽃의 수려함

물론 경주의 강한 자외선을 감내하고라도 대릉원과 첨성대, 동궁과 월지(안압지) 등이 있는 시내권 정도는 다 둘러봐야 한다고 제안하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권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여름 볼거리가 있다면 단연 동궁과 월지 옆 연꽃단지다. 풍경의 천연함으로 말하자면 동궁과 월지 또한 압도적이지만 7~8월에는 그와 이웃한 대규모 연꽃단지도 만만찮다. 여름이 아닌 계절에는 동궁과 월지로 향하는 길목 정도로 여기는 곳이기도 그 변신은 놀랍도록 화려하다. 드넓게 펼쳐진 연밭의 고랑을 걷다보면 불별더위도 잊고 연꽃의 수려함에 반하게 된다. 진흙에서 피어난 맑고 고운 연꽃을 보노라면 과연 '부처님의 나라'인 경주에 잘 어울리는 꽃이구나 싶다. 불상을 모시는 자리를 연꽃무늬로 조각하는 까닭도 부

처님 또한 연꽃처럼 다사다난한 생에서 고결한 덕으로 중생을 구제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경주의 시화(市花)도 연꽃일까 싶지만 시화로 선택된 꽃은 개나리다. 상징적으로 볼 때 연꽃이 더 어울리지 않나 싶지만 기실 봄이면 남산 골 언저리며 곳곳의 왕릉마다 흐드러지게 울타리를 치는 개나리를 떠올리면 딱히 아쉬울 것도 없을 일이다. 무리진 연꽃은 동궁과 월지 옆 연꽃단지 뿐 아니라 서출지와 황남동 고분군 일원 등에서도 만날 수 있다. 단, 연꽃이 만개한 여름은 그리 길지 않다. 여름의 경주와 연이 닿았다면 연이 피워낸 말간 얼굴과 눈이라도 맞추고 가야한다.





1 경주 교촌마을 처마 끝 풍경소리가 여름바람에 실려 들려오는 듯하다. 2 양동마을 여름에는 양동마을 앞에도 연꽃이 피어나 옛집들과 함께 절경을 만든다. 3 주상절리 파도소리길 파도소리와 독특한 형태의 주상절리 풍경이 더해져 마치 서정적인 로맨스 영화의 잘 뽑아낸 예고편 같은 길이다.

경주의 '조선', 경주의 '바다'

연꽃을 보았다면 시내권에서의 여정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대릉원도 첨성대도 불국사도, 그리고 경주 남산도 여름에는 붐하고 가을에 들여다볼 일이다. 이제 발걸음은 경주의 끝과 끝으로 향한다. 정확히는 북쪽 끝과 동쪽 끝이다. 경주라는 지명을 입 밖에 내었을 때 대개의 사람들이 떠올리지 못하는 곳. 경주와 사뭇 어긋나는 듯 하지만 뜻밖에도 묘한 합을 이끌어내는 곳. 경주의 북쪽 끝 '조선'과 경주의 동쪽 끝 '바다'다.

먼저 경주의 조선에 들러 본다. 신라의 천년 수도에서 조선을 만난다는 것은 꽤 이례적으로 느껴지지만 이곳만큼은 일부러 들러도 후회 없을 곳이다. 물론 경주 마니아를 자처하는 이들은 '나만의 아지트'를 두고 오래 머물 수 있어 좋다고도 말한다. 꽤 오랜 시간 아는 사람만 가는 경주의 숨은 명소였다. 이제는 그 '숨음'이 소문날 대로 소문나 더 이상 숨은 곳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곳의 진면목은 역시 방문객이 드문 여름에 있다. 바로 양동마을이다. 자그마한 언덕 위에 한 채, 두 채 자리 잡은 초가집과 기와집들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라는 노랫말을 자연스럽게 연상시킨다. 동산을 대지 삼아 적당한 간격을 두고 집을 지어 형성된 이 소담스런 마을은 참으로 사랑스러운 자태를 지녔다. 5백년을 이어 대대손손 살아온 주민들이 있기에 여느 '민속마을'처럼 인위적이고 상업적인 느낌도 없다. 색색의 빨래가 바람에 나부끼고 발일하는 아주머니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아아, 양동마을 주민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이장님의 마을방송도 푸근하다. 꼬리 짧은 경주개 '동경이'도 이방인을 향해 살갑게 꼬리를 흔든다. 이곳에서 관광객은 더 이상 관광객이 아니다. 예고 없이 들른 마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뿐사뿐 조심스레 마을길을 걷는 과객이 될 뿐이다.

양동마을은 경주 손씨와 여강 이씨에 의해 15~16세기에 형성된 양반마을로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다. 전국 여섯 개 전통마을 중에서도 마을 규모, 보존 상태, 자연환경 등 여러 면에서 훌륭하다는 평을 받는다. 마을 내에서는 서백당, 무침당, 향단 등 꼭 둘러봐야 할 한옥 몇 곳이 꼽히는데 굳이 건축물 때문이 아니더라도 마을 자체가 멋스러우니 찬찬히 둘러보면 좋다. 여름에는 양동마을 앞에도 연꽃이 피어나 옛집들과 함께 절경을 만든다. 카메라 프레임 뿐 아니라 눈 안에 담기는 마을의 풍경이 가장 아름다울 때다. 양동마을 내 서너 집에서는 민박을 하는 데 여름에는 이 민박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낭만' 또한 느껴봐야 한다. 대청마루에 앉아 시원하게 수박을 먹고 그대로 누워있다 보면 이윽고 밤이 찾아온다. 아무 걱정도, 어떤 외로움도 없는 밤이다. 조명은 별빛과 달빛, 음악은 풀벌레, 냉방은 산바람이 담당한다. 잊을 수 없는 여름밤이 바로 여기, 경주 양동마을에 있다.

로맨스 영화의 예고편 같은 파도소리길

이제 동쪽 끝으로 갈 차례다. 타지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경주에 바다가 있어요?” 지리에 무지한 질문이라기보다 이 또한 불국사와 대릉원 등 경주의 대표적 이미지들에 바다가 가려진 탓일 테다. 시내로부터 자동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경주의 바닷가는 그런 연유에서인지 여름에도 피서객이 몰리지는 않는 편이다. 그나마 사람들의 발걸음이 잦은 곳이라면 세계 유일의 수중릉으로 알려진 문무대왕릉이다. 봉길해변과 맞닿아 있지만 한여름에도 해수욕을 즐기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사정은 이웃한 진촌해변이나 나정해변도 마찬가지다. 해서 한적한 피서를 즐기고 싶은 이들이라면 경주의 해변만한 여름바다가 또 없을 듯하다. 허나 경주 바다에서 진짜 ‘매력’적인 곳은 따로 있다. 그 첫걸음은 알록달록 벽화와 담화가 그려진 작은 항구, 읍천항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다음은 파도소리를 들으며 바다와 소나무 사이를 걸을 차례다. 국내에서 보기 드문 주상절리와 검푸른 바다, 해송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풍경 사이로 잘 닦인 마룟길이 1.7킬로미터에 걸쳐 이어진다. 길 이름은 ‘주상절리 파도소리길’.

읍천항부터 하서항 방향으로 난 이 길은 천천히 걸어도 2시간이면 충분하고 까다로운 구간 없이 길이 평탄하며 시시각각 새로운 풍경이 나타나 걷는 데 지루함이 없다. 용암이 빠르게 냉각되어 만들어진 오각형, 육각형의 돌덩이인 주상절리는 주름치마, 부채꼴, 꽃술 모양의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고 여기에 부딪히는 파도는 눈부시게 하얗다. 걷다보면 무더위는 바다가 삼킨다. 사실 이 길은 군사지역으로 분류돼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했으나 3년 전 공개되어 경주의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다. 아쉽지도 과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거리인데다 파도소리와 독특한 형태의 주상절리 풍경이 더해져 마치 서정적인 로맨스 영화의 잘 뽑아낸 예고편 같은 길이다. 길었던 여름해가 산 아래로 기울 즈음, 마지막 코스로 읍천항에서 멀지 않은 감은사지로 간다. 덩치 한번 우람한 든든한 두 석탑, 감은사지 삼층석탑 사이로 넘어가는 해를 보기 위함이다. 대지를 뜨겁게 달구었던 태양의 빛이 서서히 잦아들고 경주의 하루가 그렇게 또 지나간다. 경주의 여름은 더 이상 뜨겁지 않다. 황홀하다. 🌊



최고의 품질 위해 장인정신으로 뭉쳤다!

성우하이텍 생산관리팀 조립3반

차체 부품에도 이른바 명품이 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명품은 어느날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수없이 많은 손길과 장인정신이 결합될 때 비로소 명품이 탄생한다. 공정 하나하나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호응도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마쳐야 비로소 세계 최고의 명품 차체가 탄생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생산관리팀 조립3반은 오늘도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찰떡같은 호흡으로 손발이 척척!

조립3반에는 김성기 반장을 필두로 41명의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다. 80년대에 입사한 장기근속자들만 무려 6명이다. 가장 오래 근무한 직원은 85년도에 입사해 29년이나 근속했다. 반면 군 입대로 휴직했다가 복직한 어린 직원도 있다. 하지만 세대 차이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다 같이 어울려 낚시도 자주 가고 주말에는 풋살, 축구, 족구 등 스포츠 경기도 함께 한다. 조립3반 반실 한쪽 벽면에는 지난 여름, 부산 임랑에서 보낸 야유회 사진이 가득 붙어 있다.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호프데이 카드’도 유용하게 쓰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호프데이는 반원들이 모여 업무에 대해 논의도 하고 일상의 고민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성우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현장에서 욕쟁이 반장으로 불리는 김성기 반장은 조립3반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반원들을 아끼고 있다. 특유의 카리스마로 반원들의 고충을 자기 일처럼 들어주고 이해하려 노력한다. 이런 이유들로 반원들 간의 트러블도 거의 없다. 성우하이텍이 노사화합의 우수기업으로 꼽힐 수 있었던 원천에는 조립3반의 이런 가족같은 분위기도 큰 일조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신공법, 신기술 적용을 선도하다

조립3반은 성우하이텍 서창공장에서 신기술 적용을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1년 현대자동차의 'TB(클릭) project'가 시작됐을 때도 조립3반이 그 중심에 있었다. 특히 조립3반은 TB Project를 통해 차체 도어 제작을 처음으로 수주받아 성공적으로 납품했다는 자부심이 있다. 이를 계기로 현대자동차의 JM(투싼) 도어, RBK(엑센트) 도어 등을 제작했다. 올해부터는 프리미엄 자동차 DH(제네시스)의 차체 부품 제작에 들어갔다. 주간반과 야간반으로 나뉘어져 하루에 300대 분량의 제품을 제작하는데, DH에는 레이저접합기술, 리벳접합기술, 고강도프로젝션용접기술 등 다양한 신공법과 신기술이 적용되었다. 조립3반에서는 DH의 사이드멤버, 후드 등의 차체 부품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NC(맥스크루즈) 도어도 생산한다. 각 공정별로 선임 다기능공이 있어 후임자들을 가르친다. 차체조립라인에서 일어나는 용접작업, 실러(Sealer)작업, 금속표면마감작업, 볼트(Bolt)작업, 헤밍(Hemming)작업 등 각종 공정에서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씩 유닛 단위로 순환 배치한다. 선임같은 우수 다기능공을 양성하기 위해서이다.

거듭된 개선으로 명품을 만든다

성우하이텍은 B2S(Burr, Scratch, Spatter) Zero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물질과 스크래치가 없는 프레스 단품 품질과 용접 스패터가 없는 현장을 만들어 환경친화적인 클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이다. 조립 3반은 B2S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DH가 신규 아이템이다 보니 용접 스패터가 많이 튀는 부분을 가능한 튀지 않게 작업하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해 놓았다. 2년 전에는 조립라인 우수 개선 사례로 뽑히기도 했다. 조립라인의 작업성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개선 전에는 제품을 취출할 때 작업자들의 자세가 불안정해 공정을 진행하면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공정의 로딩 시간 또한 오래 걸렸다. 개선 후에는 제품의 취출이 용이해지고 공정 로딩 시간도 감소했다. 효과금액은 연 2천만 원으로 추산되었다. 공정책임자 및 작업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도 한 몫을 했다. 이와 더불어 조립3반은 비용절감 제안을 많이 하고 있다. '보호글라스 소모품 절감안', '공정배치인원 운용 절감안' 등이 그것이다. 작업방법교육과 작업능력교육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작업자들이 편하고 능률적으로 작업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다.



조립3반 반원들의 올해 목표는 공법 개선에 있다. 이를 통해 생산 사이클 타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생산성 향상에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몸짓만 봐도 다음 공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다는 조립3반 반원들. 끈끈한 눈빛으로 무장된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받쳐주며 고락을 함께 하는 진정한 조립 전문가들이다. 

끝없는 도전을 향한 첫걸음!

‘나’를 보태면 ‘우리’가 된다 신입사원들의 고군분투기



올해 성우가족이 된 새내기 사원들. 이들 신입사원 55명(경력사원 4명 포함)의 열정과 패기는 회사의 신선한 활력이 되고 있다. 이들은 성우에서 어떤 꿈과 비전을 그려 나갈까? 입문교육과 직무교육, 사내 후견인제도 등을 통해 참된 성우인으로 거듭난 새내기들의 고군분투기를 따라가보자.





1



2



3

4

1 활짝 웃고 있는 새내기 신입사원들 2 '부모님 초청 신입사원 환영회'에 참석한 신입사원의 가족들 3 설렘 반, 긴장 반, 김태일 대표이사 사장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4 재치있는 만담으로 좌중을 폭소로 몰들이다.

“나는 성우인이다!”

신입사원들은 지난 2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경주 드림센터에서 합숙하면서 신입사원 교육을 받았다. 아직까지 실감나지 않는 듯 설렘으로 가득 찬 눈빛들. 신입사원 입문교육은 각 사업장을 방문해 선배들의 환영인사와 조언을 경청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후 김태일 대표이사 사장의 특강을 들으며 마음 속에 자신만의 목표를 그려보기도 했고, 연수원으로 이동한 뒤에는 강의, 실습, 토의 등 다양한 활동과, 2월 12일에 있을 '부모님 초청 신입사원 환영회'에서 뽀빠리 팀 퍼포먼스 준비로 하루를 분주히 보냈다. 2월 10일부터 12일까지는 서창공장 컨퍼런스 홀에서 사업부별 직무교육이 시행됐다. 강의는 원가사업부, 개발사업부, 재정사업부 등 10개 부서에서 진행했고, 각 부서의 업무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12일 오후, 신입사원들은 부모님을 초청한 가운데 팀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끝없는 도전을 향한 첫걸음이기에 새내기들은 열정과 패기를 남김없이 쏟아낼 수 있었다. 자신을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성우인으로서 꿈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결의를 보여준 시간이었다. 신입사원들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처음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한 그 다짐, 그 초심을 꼭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성우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지 배워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성실한 인재로 거듭나겠다” 등의 포부를 밝혔다. 꿈과 희망을 가득 안고 성우가족의 일원이 된 신입사원들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선후배가 하나 되는 유쾌한 만남”

성격과 나이, 외모와 직책은 달라도 마음만은 하나인 사람들이 있다. 바로 후견인 제도를 통해 만난 후견인과 피후견인이다. 2월 24일부터 5월 18일까지 진행된 후견인 제도에 참여한 팀은 모두 55개 팀. 후견인제도는 신입사원(피후견인)과 선배직원(후견인)이 1대1로 결연을 맺고 서로가 수시로 접촉하면서 피후견인에게 조직문화를 이해시키고 그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후견인이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후견인제도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다. 팀별로 회사에서 내어준 연구과제를 고민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도 쌓고, ‘회사가 키워주는 신입사원의 비밀’(임규남 지)이라는 책을 함께 읽고 감상문도 썼다. 3주, 6주, 9주차에는 ‘후견인의 날’을 정해 퇴근 후 자유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회사에서는 이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활동경비를 지급한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의논해서 사용하면 되는 그들만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다. 함께 사우나도 가고 맛있는 식사도 하면서 후견인은 자신의 직장 경험을 들려주고, 피후견인의 의견이나 고민을 들어주면서 유대감을 높였다. 또 각 팀마다 ‘후견인의 날’에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사진으로 남기는 사진콘테스트도 개최했다. 후견인제도 시행기간 후 수행일지, 독서감상문, 사진콘테스트, 상담소감문, 연구과제, 현장실습 평가 등 종합평가를 통해 우수한 팀에게는 포상도 주어졌다. 1위를 차지한 우수 팀은 윤재준 사원(후견인)과 박준우 사원(피후견인)이 함께한 ‘친차품질팀’이 차지했다. 총 12주간의 후견인제도를 통해 신입사원들은 “우리는 하나”라는 성우인으로서의 소속감과 애사심을 키울 수 있었다. 



1 이른 아침부터 미식축구를 하며 선후배 간의 돈독한 정을 쌓은 공법계획팀 김성재 과장과 조동래 사원이 사진콘테스트 최다 득표팀이 되었다. 2 4월 25일 경북 영주 소백산 ‘대표이사’와 함께하는 등반 대회,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끝까지 등반한 신입사원의 끈기와 패기에 박수를!



성우하이텍의 어제와 오늘, 그 옹골진 역사 속으로~

선택과 결단, 화합과 단결로 이루어온 기업사

since1977

기업의 역사에는 그 기업만의 독특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다. 과거와 현재를 얼마나 충실히 써왔느냐에 따라 그 기업의 미래 또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역사는 평지돌출하지 않는다고 했던가. 그동안 성우가족이 함께 써온 성우하이텍의 37년 기록, 사보 창간을 기념하여 그 소중한 역사를 정리했다. [편집자 주]





1 1989년, 부산시 기장 정관공장 전경 2 1988년, 부산시 기장 정관공장 신축 현장

1977~1989

미래를 위한 과감한 선택과 결단의 연속

성우하이텍의 전신인 성우금속공업사(부산 동구 좌천동)가 출발하던 1977년 당시에는 70년대 중반을 이끌었던 전자산업과 중화학 공업이 발전하면서 정밀가공용 공작기계가 도입되어 프레스 금형과 플라스틱 금형 등이 생산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성우금속공업사는 주로 주방기구, 농기구, 의료기기 등을 생산하던 소규모 프레스 제조업체였다. 성우금속이라는 법인명으로 법인 전환한 것은 1981년. 현대자동차 스텔라의 몰딩을 개발·납품하기 시작하면서 자동차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1983년이였다. 따라서 이전의 수익성이 좋던 주방기구 등의 사업을 과감하게 포기하며 ‘차체’라는 거시적인 아이템에 주력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성우금속은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1989년 부산 기장의 정관으로 공장을 신축 이전하기에 이르렀다. 공장 이전 후 현대·기아자동차의 본격적인 연구개발 지원과 함께 성우하이텍만의 차체기술 개발과 기술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며 차체 부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앞장서 왔다.



1990~1999

첫 해외 진출로 글로벌 기업의 서막을 열다

1990년 금형전문제작회사인 오성공업(現 성우몰드)을 설립하면서 성우하이텍은 제품의 완성도와 기술력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1994년 10월에는 기술연구소 설립을 인가받았고, 이듬해인 1995년 8월에는 성주산업(現 아산성우하이텍)을 설립했다. 이로써 성우하이텍의 한 단계 발전을 위한 도약의 골격이 만들어졌다. ISO14001 인증과 QS9000 인증도 획득했다. 그간 전사적으로 공들인 기술력과 품질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1996년, 다시 한 번 회사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인도의 첸나이에 생산 법인을 세우기로 하면서 해외공장 설립을 제안한 것이다. 이른바 ‘해외 동반 진출’의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협력업체는 물론이거니와 현대자동차그룹의 성공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인도에 진출한 자동차업체는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에 회사의 사활을 거는 것은 위험부담이 큰 모험이었고, 성우하이텍은 큰 갈림길에 놓였다.

그러나 글로벌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감한 도전이 필요했다. 그간 쌓아온 기술력과 노력이라면 세계 시장의 높은 벽도 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과 예측도 필요했다. 그 예측은 적중했다. 1997년, 인도 공장을 본격 가동한 것은 대성공이었다. 2000년 4월, 현지 전략형 모델인 상트로(국내명 아토스)가 생산누계 10만 대를 돌파하며 인도 소형차 판매 순위 1위를 차지하는 등 승승장구를 거듭했다.



1 1997년, 인도 첸나이에 성우하이텍의 첫 해외 법인 JSL 설립 2 인도법인 JSL의 프레스라인

1



2000~2009



1 2007년, 은탑산업훈장 수훈 2 2006년, 제32회 국가품질경영대회 품질경영상 수상 트로피
3 2007년, 현대기아자동차로부터 품질 및 기술 5스타 인증



기술 발전은 마침표가 없다

2000년대는 그간 공들여온 기술력과 품질력을 바탕으로 세계 정상을 향해 질주하는 시기였다. 사명을 성우금속에서 성우하이텍으로 변경한 것도 2000년 들어서였다.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진입하기 위한 새로운 정신과 각오가 필요했다. 따라서 기업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해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됐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장영실상(2002년), 국가품질경영상(2006년) 수상과 함께 2007년에는 '포브스코리아'가 선정한 '한국을 이끄는 200대 기업'에 당당히 성우하이텍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더불어 현대·기아자동차로부터 '올해의 협력사 대상'을 수상하고 차체업체로서는 최초로 '품질5스타'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성우하이텍은 기술력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2009년까지 취득한 특허가 국내외 142건(해외 11건)에 달하는 것에서도 그 사실이 증명된다. 당시 부산에서 100건 이상의 특허를 받은 기업은 성우하이텍이 유일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BEST-HRD 인증(2009년 9월)은 지속적으로 연구 인력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에 몰두한 성과였다.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오직 정상을 향해 질주한 결과이며, 동시에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 잡은 원동력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 시기는 중국, 체코, 슬로바키아, 러시아 등 해외법인을 잇따라 설립하며 글로벌 기업으로서 성우하이텍의 입지를 세계 속에 굳히며 도약한 시기이기도 하다.

적으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

2012년 노사문화 大賞 합동시상식

2012. 11. 16(금) 10:00



1

2010~현재

좋은 기업을 넘어 훌륭한 회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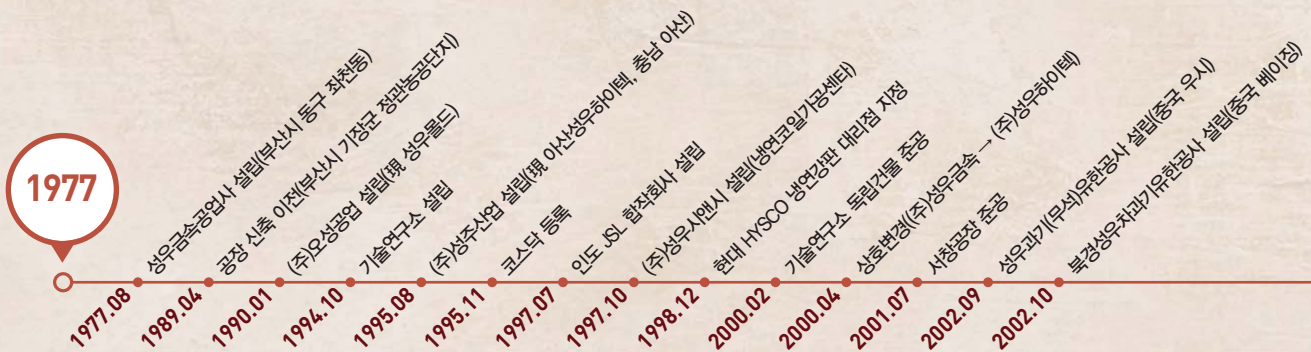
성우하이텍은 부산 향토기업으로서 지역과 인재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 장애인고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장애인고용 인식 확산을 위한 경영진의 의지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의 'TRUE COMPANY'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부산고용대상 '대상' 수상,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인증을 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성우하이텍은 국내외적으로 노사관계가 돈독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2014년 현재, 창립 3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노사 갈등이 없었다는 점이 단적으로 이를 말해준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최우선시하는 기업풍토와 경영진에 대한 신뢰로 노사평화의 오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화합된 모습은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노동부, 2001년)으로 이어졌으며, 지금까지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2012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본상 수상(GWP KOREA)(2013년)에 이어,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대기업)으로 선정(2014년)되기도 했다.



2





세계 속에 한국 위상 드높일 성우하이텍의 미래를 함께 그린다

지금까지 성우하이텍은 힘찬 전진을 통해 쉽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다. 1977년 부산 좌천동에서 성우의 역사를 처음 쓰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37년간 노·사가 함께 써내려온, 한 마디로 거침없는 역사였다. 지난 성우하이텍의 37년 역사는 걸음걸음마다 성우가족의 땀과 열정과 정성이 듬뿍 묻어있음을 우리 스스로도 잘 안다. 힘들 때는 땀과 열정을 더욱 쏟으며 때로는 밤을 낮으로 삼아 일하기도 했다.

어느새 창립 40주년을 바라보고 있는 이즈음, 지나온 발자취는 거울을 삼고 과감한 결단은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성우하이텍의 기술력과 품질력, 기업문화는 롤모델이 되고 있지만 안주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다시 힘차게 달려 나가야 한다. 마침표가 없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성우하이텍은 세계에서 한국을 빛내는 기업으로 그 위상을 드높여 나갈 것이다. 🌈



2014

성우와 함께한 나의 청/춘/별/곡

성우하이텍 지사공장 조립계
노 학문 기장

지사공장 노학문 기장. 1983년 입사해
31년째 근무하고 있는 그야말로 진성 성우인이다.
그간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성우하이텍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다는 노 기장은 청춘을 회사와 함께 한 셈이다.
누구보다 성우하이텍을 잘 알고 있는 그와 함께
성우하이텍의 과거 속으로 떠나 보자.



나는 1983년 3월 5일 토요일, 성우금속(성우하이텍의 전신)에 입사했다. 나에겐 역사적인 날이라 요일까지도 기억한다. 당시로서도 규모가 꽤 큰 편이었던 회사는 직원 수 60~70명 정도로 학장동(부산 사상구)에 자리잡고 있었다. 한 가지 흠이 있었다면 넓고 컴컴한 공장 건물이었다. **비만 오면 천장에서 비가 줄줄 쏘고 흑역 원부자재는 물론 완제품 등이 비에 맞을까봐 부리나케 비닐로 덮기도 했다.** 그때는 자동차 차체 부품 한 가지만 생산한 것이 아니라 주전자, 김치독, 농기계 바퀴 등 여러 가지를 생산했다. 이때의 생산 공정은 연마, 전처리, 살균처리를 자체에서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했다.

자동차 차체 부품을 본격적으로 생산한 것은 현대자동차에서 스텔라를 출시하던 1983년 5월부터로 기억된다. 차체 부품은 범퍼 몰딩부터 시작했다. 이때는 차체 부품을 생산한다는 자부심이 충만했다. 그래서 ‘눈만 뜨면 회사였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만큼 보통 한 달에 절반 정도 철야근무를 했다.

초창기에는 대형 차체 부품보다는 **중소형 차체 부품을 제작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어려운 공정이었다.** 버스 차체 부품은 10년 정도 제작하면서 대량생산보다는 주로 수작업으로 공정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하루에 7~8대 정도밖에 생산되지 않았다. 소형 차체인 승용차 차체 부품은 하루에 몇 백, 몇 천 개씩 작업할 수 있



1 젊은 시절, 지리산 천왕봉 정상까지 올랐을 때 찍은 사진이다. 2 사진 가장 오른쪽, 노학문 기장. 현지 기술지원을 위해 갔던 중국 상해에서 찍은 사진이다. 지금도 모두 한 공장에서 노학문기장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 3 노학문 기장의 가족사진. 성우하이텍에 근무하면서 두 딸을 모두 대학까지 보냈다. 작은 딸은 현재 졸업을 1년 남겨두고 있다.

66

정말이지 모두 한 마음이었다.

그 긴 희로애락의 세월 속에는

나의 청춘도 녹아있다.

어느새 이렇게 성장한 우리 회사,

성우하이텍을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다.

99

지만 대형 버스 차체 부품은 공정이 많다. 지금은 로봇이 물건을 옮겨주지만 그때는 포터블 건이라는 것을 천장에 거미줄처럼 꼭 매달아 놓고 사람이 끌고 다니면서 제품을 연결해서 옮기기도 했다.

1989년에 독자 수주 받는 물량이 점차 늘어나 확장 공장이 비좁았다. 그래서 정관(부산 기장군)에 본사를 겸한 공장을 크게 지어 직원 일부가 정관공장으로 이사를 갔다. 당시에는 회장님도 실무에 참여했다. 회장님이 직접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철야도 함께 했다. 모두 한 식구처럼 지냈다. 지금은 공장이 글로벌화 되고 회사 규모 또한 커져서 부서가 나뉘어 있고 직원들의 업무도 분리되고 전문화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직원 한 명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이른바 멀티플레이어였다. 그 와중에도 동료나 상사가 “이것 좀 해다오”라고 부탁하면 자기 일처럼 서로 도와주는 따뜻한 분위기였다. 직원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야유회도 참 많이 갔던 기억이 있다. 밀양 표충사는 여러 차례 갔다 온 것으로 기억된다.

지금까지 성우인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하나 꼽으라면 1994년, 대대공장을 새로 지어 옮겨갔을 때이다. 그때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 ‘IMF 사태’가 터졌는데, 마침 대우자동차에서 ‘M100(마티즈) Project’가 진행됐다. 이때 우리 회사가 마티즈의 차체 부품을 생산하게 됐다. 마티즈는 2001년에 티코가 단종 된 후 2008년까지 대한민국의 유일한 경승용차였다. 경제가 위낙 어려웠던 시기여서 너도 나도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절이었다. 이런 시기에 경차는 날개 돋친 듯 팔렸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일했다. 수출도 많이 했다. IMF 사태라는 우리나라 초유의 경제위기 속에 반사이익이라고 하기엔 아이러니한 말이었지만, 마티즈 차체 부품을 생산하면서 우리는 큰 호황을 누렸다. 그 시절에는 주말도 명절도 없었다. 고생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일에 푹 파묻혀도 모두들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정말이지 모두 한 마음이었다. 그 긴 희로애락의 세월 속에는 나의 청춘도 녹아있다. 어찌 회사에 대한 나의 애정이 남다르지 않겠는가? 어느새 이렇게 성장한 우리 회사, 성우하이텍을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다.



SINCE 1977 버스 동그란 토큰 을 아시나요?

성우금속공업사가 탄생한 1977년의 작은 역사

성우하이텍이 성우금속공업사로 세상에 태어난 해는 1977년. 어느새 3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동안 강산은 세 번이나 변했고,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은 10회나 치러졌습니다. 그 사이에 성우하이텍이 세계 최강의 자동차 차체 부품 회사로 훌쩍 성장했음은 말할 것도 없지요. 성우가족에게 1977년은 참으로 의미 있는 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우하이텍이 태동했던 1977년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청춘의 꿈을 실은 대학가요제의 시작

1977년은 'MBC 대학가요제'가 처음 열린 해이다. 첫 해에는 샌드페블즈의 '나 어떡해'가 대상을 차지해 지금까지 애창되고 있다. 배철수, 심수봉, 유열, 신해철, 015B, 전람회, 높은음자리, 이범용, 전유나 등 당대 최고의 가수들을 배출한 대학가요제는 가요제 그 이상의 의미를 담아낸 프로그램이었다. 그 시절, 순수함과 시대정신을 노래하며 청년 문화를 이끌어 온, 70~80년대 문화사에 큰 획을 그은 음악축제였던 것이다. '대학가요제'에 출연하고 싶어 대학에 진학한 이들도 있었다. 그들에게 '대학가요제'는 단순한 가수의 등용문이 아니라 꿈과 희망을 찾는 길크로드였다.

역대 최고 미모를 가진 미스코리아는 누구인가!

최근 한 언론에서 역대 최고의 미스코리아로 1977년 미스코리아 진 김성희를 선정했다. 17세의 나이로 대회에 출전해 미스코리아 사상 최연소 당선 기록을 세우기도 한 김성희는 오랫동안 미인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국적인 마스크와 간드러지는 목소리, 167cm의 흰칠한 키에 S라인 몸매 등 어느 하나 모자람이 없이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녀는 바비인형 같은 외모로 못 남성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고, 당시 중고등학생들 코팅 책받침의 최고 인기 모델이었다.



추억 속으로 사라진 버스 토큰과 버스 안내양



동그란 모양 가운데 구멍이 뚫린 백색과 황동색의 대체화폐 토큰을 기억하는가? 1977년 12월 1일 시행된 토큰제는 안내양으로 불린 버스차장 인권침해 때문에 시작됐다. 버스회사가 '뽕땅'을 막는다고 이들의 몸을 수색한 것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오자 정부는 요금지불 편의성 등을 들어 토큰제를 도입했다. 요금이 오를 때마다 바뀌는 토큰을 사재기해 차액을 챙기고 10장짜리 학생용 회수권은 숨겨놓은 칼질에 11장으로 변신했다. 토큰은 1999년 9월을 끝으로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플라스틱 교통카드가 들어섰다. 세월이 흘러 버스 차장도 토큰도 추억 속의 존재가 됐다.



내 다리 내놔! KBS 전설의 고향 방송 개시

<전설의 고향>은 한반도 전역에 걸쳐 전해지는 전설, 민간설화 등을 바탕으로 제작된 방송극이다.

1977년 10월 18일 <마니산 효녀>로 첫 방송을 시작한 전설의 고향은 방송 당시 많은 인기를 받으며 장장 12년간 꾸준히 방송된 장수 프로그램의 하나이다. 극의 중반부에 "이야기는 ○○지방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로~"라는 해설은 아직도 귤가에 생생히 들리는 듯하다.

서민들의 짐꾼 '포터(Porter)' 출시

1977년 2월, 짐꾼을 의미하는 '포터 (Porter)'가 출시됐다. 포터는 1977년 'HD-1000'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출시되었고, 1981년에는 서민 사업자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으며 5만 대가 판매됐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 합리화 조치로 인해 승용차만 생산할 수 있게 된 현대자동차는 그해 포터를 단종시켰다. 5년 뒤인 1986년 12월, 자동차산업 합리화 조치가 해제되면서 현대자동차는 1톤 트럭에 '포터'라는 이름을 붙여 출시했다. 아직도 포터는 소형 트럭의 정상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인맥은 많을수록 좋다? 성공하고 싶다면 비우고 버려라!

성공하는 직장인을 위한 관계정리법

● 관계정리의 핵심 : 선택과 관심

「비즈니스 소울메이트」의 장지훈 저자는 “통제할 수 없으면 인맥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비즈니스 인맥조차 결코 많을수록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종종 들르는 한 지역에 두 식당을 알고 있다면 어느 집으로 갈 것인가? 번갈아 가며 한 번씩 간다면 당신은 그저 어정쩡한 고객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 명의 식당 주인과 확실한 친분을 맺는 것이 훨씬 실속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보자. 우리 인생에서 불필요한 만남을 없애버린다면, 그 대신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어떤 사람은 그 돈으로 컴퓨터도 한 대 사고, 그 시간 VIP 고객 한 명을 더 만났을 수도 있다. 소중하고 중요한 관계에 집중하고 싶다면 다음 소개하는 방법으로 관계정리를 시작하자.

① 연락처 정리하기

집 정리의 순서가 '정리→정돈→청소'이듯이, 관계 정리 역시 불필요한 연락처를 삭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잡동사니 연락처가 사라지고 나면 소중한 사람들만 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연락을 하는 것도 쉬워진다. 다음 기준을 참고하여 지금 바로 연락처를 삭제해보자.

- ✓ 1년 이상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사람
- ✓ 내 삶을 방해하거나, 안 좋은 감정을 주는 사람
- ✓ 연락처가 변경된 사람

창의체험의 조원용 대표님은 나의 인맥정리 글을 읽고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 목록 중 무려 600명이나 삭제했다. 앞으로 연락처에 남긴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좀 더 집중하여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이야말로 행복과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관계 정리가 힘이다」라는 책을 준비하고 있을 때, 가장 흔하게 들었던 반응은 “이제 사람까지 정리하세요? 그건 좀 심한 거 아니가요?”였다. 그러나 맥도날드에서 페이스북 친구 10명을 지우는 사람들에게 햄버거를 공짜로 주었더니, 일주일일 채 되지 않아 2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페이스북 친구 리스트에서 지워졌다고 한다. 햄버거 하나로 그동안 없어도 되는 관계들이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다. 또, 우리 주변에는 나를 기분 상하게 만들고, 기운 빠지게 하며,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관계 정리가 시급한 사람들인데, 그들로 인해 나의 소중한 돈, 시간, 감정,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이다.



윤 선 현

국내 1호 정리 컨설턴트
(주)베리굿정리컨설팅 대표

가정과 기업을 대상으로 정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윤 선현 대표는 '정리를 하면 삶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믿음으로 '정리의 힘'을 전파하고 있다. 저서 <하루 15분 정리의 힘>은 알라딘, yes24, 인터파크에서 '2012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고 신간 <관계 정리의 힘>도 베스트셀러로 떠오르고 있다.

② 정기적으로 관계 정리하기

그 다음으로 추천하는 정리 방법은 정기적으로 관계를 정리해 보는 것이다. 나는 매년 인맥을 고마운 분, 새로 만난 분, 미안한 분,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어 선정하는 일을 한다.

(고마운 분) 100 대표님 : 올해 저에게 컨설팅 고객이 되어주시고, 사업적으로 여러 조언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새로 만난 분) 안OO 대표님 : '하루 15분 정리의 힘' 워크숍에 참석해서 알게 되었는데, 저에게 재무 컨설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안한 분) 정OO 대표님 : 제가 약속을 미루며 지키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더 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좋은 점은 과거의 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점이다. 내가 정한 세 가지 분야 외에도 나를 상치주고 불편하게 한 사람, 거리를 적당히 두고 자발 사람 등을 선정하는 것도 좋다.

●● 관계정리의 키워드 : 경청과 관심

관계를 정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경청과 호기심을 통해 기존 인맥들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것이다. 80:20 법칙으로 유명한 리처드 코치는 우리가 그간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인맥 이야말로 우리 삶을 흥미진진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기회와 정보, 혁신의 가능성을 훨씬 더 많이 제공한다고 말했다. 생각해 보면 안 맞는 사람 한 명을 평범한 관계로 바꾸는 것보다 평범한 두 명을 친구로 바꾸는 것이 훨씬 시간이 적게 든다. 경청과 호기심을 통해 현재 내 주변에 있는 약한 관계들을 깊게 만들게 되면, 새로운 관계로 인해 기존의 불필요한 관계는 사라지고,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보물과 같은 인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



광활한 대륙에서 성우의 기개를 펼치다

성우하이텍 북경법인 북경성우차과기유한공사 [北京星宇車科技有限公司]

성우하이텍 북경법인인 '북경성우차과기유한공사'는 중국 북경시 평곡구 흥곡로 28호에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현대·기아차의 국내 생산 감소에 따른 내수부진을 중국에서 만회하였듯이, 현대·기아차의 중국 법인과 동반 성장 흐름을 유지하는 한편 세계시장을 향한 적극적인 공략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북경법인은 자동차시장의 높은 파고와 급변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품질경영으로 차체 부품 시장에서 탄탄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출실적도 해마다 높아가고 있다.



1 중국 북경시 평곡구에 자리잡은 북경성우차과기유한공사 2 2007년, 북경현대자동차로부터 품질 '5-STAR' 획득 인증 현판 3 북경성우차과기유한공사의 금형공장 내부



광활한 대륙 개척의 거점이 되다

중국은 2000년 이후 연평균 24%의 고성장을 이룩하며 세계 자동차 대국으로 부상했다. 현재 중국시장은 13억 인구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생산거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성우하이텍은 지난 2002년 10월 14일 북경법인을 설립하고 18일 1공장의 착공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생산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대지 약 5만 5,000평에 건평 3만 5,000평 규모이다. 그 후 2006년 5월에는 2공장을 설립하고, 이듬해인 2007년에는 금형공장을 완공했다.

현재 북경성우차과기유한공사는 북경현대의 엘란트라, 소나타(EF/NF), 투싼, 아반떼, 싼타페, i30, ix35 등의 차체 부품과 북경벤츠의 W204, V212 등의 차체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선진기술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성우하이텍 북경법인은 광활한 중국대륙에서 적극적인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세계시장에서도 기업 이미지 호평

북경성우차과기유한공사는 국내 법인과 꼭 같이 우수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중국 현지의 우수 인력을 초빙하여 각 분야에서 업무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좋은 기업 이미지로 호평을 받는 데 일조하고 있다. 현재 주재원 20명을 포함해 약 2,6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자동차 부품업계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 표준인 'TS 16949' 취득과 더불어 2006년에는 환경경영시스템 표준인 'ISO14001'을 취득했다. 이러한 표준 취득은 최적의 환경에서 친환경적인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2007년에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5-STAR'를 획득함으로써 고객사로부터 신뢰를 얻은 것은 물론이고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튼튼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2008년, 북경현대로부터 최우수 협력업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고, 최근에도 탄탄한 신뢰를 이어오며 최우수 협력업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싱글PPM 품질혁신운동'(제품 100만 개 중 불량품 수를 10개 미만으로 낮추자는 품질혁신운동)으로 '0(제로)PPM'을 달성해 무결점 품질을 완성했다. 이 밖에도 '우수공업기업', '납세신용 A급 기업', '근로자의 날 대통령 표창' 등 대내외적으로 우수기업의 면모를 과시한 바 있다. 북경성우차과기유한공사의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1

同心运动会的由来

2003年, 会长访问北京星宇时提出以“同心, 团结”为主题组织丰富多彩的活动, 2004年北京星宇以同心命名举行了第一届同心运动会, 特邀会长及平谷区领导、北京现代相关领导莅临指导。开幕式上会长指出: 五一国际劳动节, 是全世界劳动人民共同拥有的节日, 希望北京星宇家园的成员及家属欢聚一堂, 共同庆祝自己节日。于此, 五一同心运动会延续至今。其中第十届同心运动会, 又一次邀请会长出席。自2004年起举行第一届同心运动会以来, 历经十一年的发展历程, 从3000人参加壮大到5186人的浩大规模, 堪称平谷区的“奥林匹克”盛会。

本届运动会应邀嘉宾、北京星宇职工及职工家属总参与人数高达5186人(其中员工2772人, 占人员总数的53%, 员工家属2213人占人员总数的43%), 运动员共有8支代表队, 参与球技、田径和团体类13个竞赛项目的角逐。

通过举办不同风格的体育、文化活动, 深刻体现了我们是一个不断创新而富有活力的企业, 团结而完善、诚实而积极、互爱且互助的社训理念, 在北京星宇得以淋漓尽致的展现!

北京星宇车科技有限公司 2014年 WORKSHOP

通过在真实或模拟环境中的具体活动, 获得亲身体验和感受, 并通过与团队成员之间的交流实现共事, 然后通过反思、总结提升为理论或成果, 最后将理论或成果应用到实践中。通过此次活动, 加强了公司员工的凝聚力和向心力, 调动员工的工作热情和斗志, 增强组织活力, 改善组织文化, 走进自然, 放松心情, 提升组织整体沟通与协调的精神和能力, 同时, 培养员工对公司的信任感和归属感。





2



3

1 중국 오성홍기, 태극기, 성우사기를 앞세우고 입장하고 있는 선수단 2 병영체험의 일환으로 군복을 입고 진행되는 워크숍
3 본격적인 워크숍 시작에 앞서 마음을 다잡는 거수경례



한 발짝 더 도약하는 내일을 위해

북경법인 임직원들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기업 문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라는 화합의 장을 마련해 두고 있다. 매년 ‘북경성우 한마음 운동회’를 지금까지 개최해온 것이 그

것이다. ‘북경성우 한마음 운동회’는 다양한 체육, 문화 활동을 통하여 언제나 기업과 사원이 서로 사랑하며 아끼는 회사를 가꾸어 가자는 사훈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2004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11회를 맞이했다.

대회는 내외빈을 비롯, 북경성우 임직원 및 가족들, 스태프 등 총 5,186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그래서인지 ‘북경성우 한마음 운동회’는 북경시 평곡구의 “올림픽성회”라 불리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육상, 구류(구기종목), 단체오락 등 13개 운동경기의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운동회인 것이다. 올해 대회에서는 MDC(아반떼), DMC(싼타페), CF(미스트라)팀이 각각 1, 2, 3위를 차지했고, HDC(아반떼)팀이 조직상을 수상했다.

또한 올해는 ‘북경성우차과기유한공사 워크숍(WORKSHOP)’이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조직문화개선능력을 제고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긴장을 풀고, 동시에 회사에 대한 신뢰감과 소속감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워크숍은 직원들 간 응집력과 구심력을 강화하고 근무열정과 투지를 북돋우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병영 체험의 일환으로 군복을 입고 진행된 워크숍은 힘을 합쳐 미션을 수행하는 야외 훈련과 교육 등으로 서로 간의 협동심과 단결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북경성우차과기유한공사는 이러한 단결을 바탕으로 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면서 중국시장은 물론 세계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글로벌 생산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북경의 골목에서 부산을 만나다

구불구불 골목길은 향수를 느끼게 한다. 때로는 코흘리개들의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골목길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기도 한다. 동네 구석구석을 이리저리 통하는 좁은 길은 언제나 사람냄새로 가득하다. 골목길에 들어서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싶다. 북경에도 사람냄새가 가득한 골목이 있다. 북경과 부산의 다른 듯 같은 골목을 천천히 걸어보자. 글·성우하이텍 전광현 차장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북경 '후통'

북경의 '후통(골목)'에 들어서서 잠시 눈을 감고 긴 숨을 들이쉬면 그곳에 담긴 역사의 한 장면에 빠져든다. '후통[胡同, hútòng]'이라고 부르는 북경 골목은 원래 몽고어로 '작고 좁은 길' 혹은 '우물'을 뜻한다. 후통은 도시의 혈관이자 교통의 통로가 아닌 보통시민의 생활터전이다. 역사와 문화발전을 이끈 변천의 무대, 그래서 후통은 중국 수도 북경의 젓빛을 다채롭게 물들인다.

13세기 원나라 때 대부분 형성되었다는 북경 후통. 걸음을 멈춰 지나가는 어르신과 서툰 중국어로 몇 마디 나누다보면 저마다의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수많은 벽돌과 기와는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도시민의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



다. 골목마다 빼곡히 들어찬 네모 반듯한 사합원(북경의 전통 주택 양식, 중앙에 마당을 중심으로 사방이 집채로 둘러싸여 있다)은 이웃 간의 정을 느낄 수 있어 우리네 모습과도 흡사하다. 북경 후통은 중국 원·명·청 삼대를 거치며 지금의 모습을 갖췄고 정동, 정서 방향으로 자금성 주위를 에워싸고 있다. 후통의



폭은 주로 9미터를 넘지 않는다. 1미터가 채 안 되는 곳도 있다. 길게는 6.5킬로미터에 달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십여 미터도 안 되는 곳도 있다. 그래서 중국에는 “유명한 골목만 삼천 육백 개요, 이름 없는 골목은 쇠털에 견줄만하다. (有名的胡同三千六, 没名的胡同赛牛毛)”라는 속담도 있다. 북경 후통은 저마다 이름을 갖고 있다. ‘석씨 아주머니네 골목’, ‘왕씨 가족장인 골목’, ‘문승상 골목’ 등이 그것이다. 또 사물의 이름을 딴 ‘금붕어 골목’, ‘양꼬리 골목’, ‘꿇구멍 골목’도 있고, 북경 토박이로 지은 ‘병어리 저금통 골목’도 있다.

골목의 르네상스 시대를 연 부산 ‘감천문화마을’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은 어디일까? 그곳은 바로, 미로 끝에 있는 예술마을(르몽드)로 칭송 받는 ‘부산 감천동 문화마을’이다(2012년 CNN 선정). 산복도로 르네상스의 발원지인 감천마을은 단연 부산 골목길 투어 1번지로 꼽힌다. 감천문화마을은 부산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로 수능시험에 등장하기도 했다. 감천(甘川)은 ‘검은 신(神)’이란 뜻인데, 이름처럼 지석묘(支石墓: 돌로 기둥을 만들고 그 위에 편평한 돌을 얹은 분묘) 6기가 발견되어 이곳이 청동기시대에 형성된 고읍



(古邑)임을 입증해주고 있다. 감천문화마을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벽화와 예술작품으로 꾸며져 있다. 곳곳에서 빛을 발하는 문화관광해설사 도우미들은 관광객을 미소 짓게 만든다. 이정표를 따라 마을을 돌다 보면 관광객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공간과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이 즐비하다. 특히 하늘마루에서는 용두산공원을 비롯한 부산항, 감천항의 멋진 경관을 만끽할 수 있다. 2011년 3만 명의 관광객이 찾았지만 2년 뒤인 2013년에는 그 수가 10배가 늘어 30만 명이 찾을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미로처럼 얽힌 감천문화마을의 골목길을 걷다보면 어느새 옛날로 돌아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아련한 어린 날의 향수가 녹아있고, 변모해 버린 도심의 얼굴 속에서 아름다움이 재생된 현주소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제공

후통사진 : 투어팁스 www.tourtips.com

투어팁스에서 전 세계 가이드북을 무료로 만날 수 있습니다.

감천문화마을사진 : 박수정 사진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퇴근 후에 서점을 들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좋은 책은 하루에만 수백 권씩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쏟아지는 책 속에서 나에게 알맞은, 가장 유익한 책을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어려움을 덜기 위해 성우인들이 직접 추천하는 책을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

김태일 대표이사 사장의 추천도서 '답을 내는 조직'

김성호 지음 | 쌤앤파커스 펴냄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변명이 보인다’는
말이 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긍정적인 상상력을 북돋는다.

- ‘답을 내는 조직’ 15p



김태일 대표이사 사장은 김성호 작가의 <일본전산 이야기>를 추천도서로 선정한 데 이어 같은 저자의 <답을 내는 조직>을 임직원들에게 추천했다. 특히 지난 7월 16일에는 저자를 초청해 직접 강의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성우하이텍 서창공장 대강당에서 두 시간 동안 진행된 강의에서 김성호 작가는 ‘미래를 여는 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전체 구성원이 통일된 생각과 비장한 마음으로 뭉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직원은 답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는 사람이 되고, 기업은 그런 사람들로 조직을 채워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고객을 창출하는 것이 바로 ‘쫓’이라고 정의했다.

책 속에서 답을 얻는다. - 김태일 대표이사 사장 -

“저는 책 속에 파묻혀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항상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책을 둡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책 1,000권을 읽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고 공부하면서 읽습니다. 책 속에서 해답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다시 기록을 보면 책을 읽을 때 했던 생각과는 또 다른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답을 내는 조직’은 저를 포함한 전 직원들에게 공부라 될 것 같아 선택한 책입니다.”

성우하이텍 경영기획팀 강승태 과장

지난 12여 년간의 직장생활을 돌이켜보면, 신입사원 시절의 열정과 치열함이 현실과 타협하고 안주하는 소극적인 자세로 변해버린 것은 아연가 하는 자책을 해보게 된다.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여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아산성우하이텍 아산기술팀 이광운 과장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그 방법을 알면 쉽고 편하겠지만 듣는 것 보다는 눈으로 보는 게 낫고, 눈으로 보는 것 보다는 한번 행하는 게 낫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다. 원하는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리더로서, 팀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후배 직원들에게도 많은 것들을 지도하고 이끌어 주는 선배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이렇게
원했습니다!

성우하이텍 지사총괄팀 차호상 차장

이 책의 핵심은 치열함, 절박함, 간절함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나는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얼마만큼의 열정을 쏟고 있는지, 너무 안일하게 업무를 하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절박함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프로젝트로 해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성우몰드 공법계획팀 박영재 차장

“답을 내는 조직”이란 책을 접하며 현재에 안주해 변화와 개선에 적극적이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반성할 하게 됐다. ‘나’가 아닌 조직을 위한 업무방식을 제안하고 실행하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생각을 하는 해답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꼭 그렇게 될 것이다.

성우하이텍 기술연구소 제품설계팀 이상래 과장

모든 문제는 생각에 있고, 모든 해결책도 생각에 있다.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에서 우리는 외부의 도전에 직면하고, 내부의 갈등을 겪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현명하게 이겨내고, 나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바른 생각, 도전하는 생각을 가져야겠다.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올해의 협력사 大賞」 수상



당사가 1월 10일 제주도 해비치호텔에서 개최된 2014년 현대·기아 협력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이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인 「2013년 올해의 협력사 대상」을 수상하였다. 2006년에 이어 두 번째 대상의 영예를 안은 성우하이텍은 현대·기아자동차의 품질향상과 신기술 개발에 대한 기여와 공정한 거래 관계를 유지,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협력사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상인 대상을 수상하였다. 아울러 이날 당사는 2007년부터 이어 온 기술 5스타 달성에 따른 인증패도 수상하였다. 성우하이텍은 '최고의 품질이 최선의 영업이다'는 슬로건 아래 현대자동차그룹의 '품질을 통한 브랜드 혁신'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제품으로 글로벌 자동차 부품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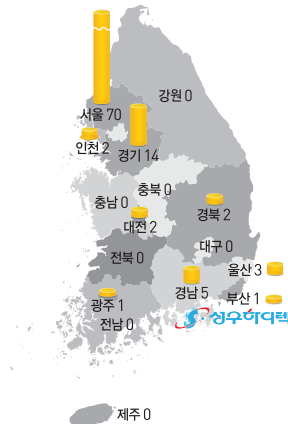
GM의 「올해의 우수 협력업체상」 6년 연속 수상



당사는 지난 3월 17일(현지시간) GM의 본사가 위치한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GM의 「올해의 우수 협력업체상(Supplier of the Year Award, 2013)」 시상식에서 6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GM은 '올해의 우수 협력업체' 시상식에서 현재 거래 중인 전 세계 자동차부품업체 가운데 우수 부품업체 68개사를 선정했으며, 당사는 국내 타 협력업체 18개사와 함께 수상하였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GM 내 높아진 한국 자동차부품업체의 위상이 반영되어 미국을 제외하고 2008년부터 6년 연속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협력업체가 한국에서 선정되었다.

성우하이텍, 대한민국 매출액 100대 기업 중 93위 랭크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본사 소재지



순위	기업명	매출액	순위	기업명	매출액
76	현대하이스코	40,461	89	STX조선해양	33,487
77	현대미포조선	39,858	90	현대로템	32,993
78	아모레G	38,953	91	영풍	32,737
79	KT&G	38,216	92	KCC	32,330
80	CJ대한통운	37,390	93	성우하이텍	31,058
81	동부제철	37,812	94	아모레퍼시픽	31,004
82	금호타이어	36,985	95	풍산	30,220
83	코오롱글로벌	36,627	96	한일화학	29,559
84	세아홀딩스	36,621	97	OCI	29,555
85	삼천리	36,580	98	인터파크	29,305
86	롯데하이마트	35,190	99	삼성테크윈	29,120
87	태광산업	35,133	100	지역난방공사	28,785
88	쌍용차	34,848			

당사는 5월 12일 금융감독원과 에프앤가이드가 발표한 '2013년 IFRS 연결기준 100대 기업 본사 소재지'와 관련하여 전국 93위에 올랐다고 연합뉴스에서 보도했다. 부산 기장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성우하이텍은 2013년 31,058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여 부산지역에서는 유일하게 100대 기업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자율적 한마음 경영 선포



성우하이텍은 1월 3일 국내 및 해외 11개 사업장을 화상시스템으로 연결한 가운데 서창공장 대강당에서 대망의 갑오년 한해의 업무를 시작하는 시무식을 개최하였다. 이명근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작년부터 시작된 허물벗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율적 한마음 경영'이라는 경영목표에 따라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하여 1위가 아닌 일류기업이 되어야만 다국적 기업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사를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가며 하나로 뭉쳐 소통이 잘되는 회사가 된다면 앞으로 100년도 내다 볼 수 있는 회사가 될 것"이라며 "한마음이 되어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만들 수 있는 2014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제3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제33기 정기주주총회가 3월 27일 서창공장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위임주주를 포함한 156명의 주주가 참석하였고,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68.22%의 참여로 제3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정관 일부변경, 이사 선임, 감사 선임, 이사 및 감사한도 등을 승인하였다. 의장을 맡은 대표이사 김태일 사장은 인사말에서 "임직원의 일치단결된 노력과 주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2013년 13개 종속회사와 14개 기타회사를 기반하여 연결 매출 3조 1천 58억 원, 당기순이익 1천 534억 원으로, 3.2% 매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소개하며 기술경쟁력, 품질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해 고객만족도가 가장 우수한 글로벌 부품사로 거듭날 것임을 강조하였다.

제12회 성우하이텍배 KNN 환경마라톤대회 개최



당사가 후원하는 제12회 환경마라톤대회가 3월 23일 시민 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안리와 수영 강변 일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는 화창한 날씨 속에서 EXR에서 제공한 기념 티셔츠를 입은 초록 물결들은 부산 도심의 친수 공간을 가로지르며 봄기운을 만끽하였고, 성우하이텍, 아산성우하이텍, 성우몰드 가족 이천여 명도 환경의 소중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레이스를 함께 달렸다. 특히 올해에는 독일 WMU 뿐만 아니라 체코, 슬로바키아, 러시아법인에서 선발된 우수사원들도 함께 참여하여 서로 사랑하며 아끼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370개사 대표로 설명회 개최



당사는 지난 3월 25일부터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4년 협력사 채용박람회'에서 현대·기아자동차 370개 협력사 대표로 동반성장 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인사정보사업부 도종복 상무는 기자간담회에서 "현대·기아자동차와 동반 해외진출을 통해 기술력, 품질력과 브랜드 경쟁력을 무기로 글로벌 자동차 부품 회사로 도약할 수 있었고, 현대·기아자동차에서 마련해 준 협력사 채용박람회에 매년 참여하면서 회사 지명도를 높여 우수 인재 확보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성우하이텍 장학금 수여식 개최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지역협의회는 3월 28일 부산지방검찰청 6층 소회의실에서 (주)성우하이텍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당사는 청소년 선도와 범죄예방사업의 발전을 위해 동참하고 있으며, 금번 부산누리학교, 부산금관학교, 부산보호관찰소 및 부산소년원으로부터 가정형편이 어렵고 품행이 모범적인 청소년 10명을 추천 받아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주)성우하이텍 장학금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년전담 부장검사 와 법사랑위원 도종복 상무, 그리고 유관기관 대표가 참석하여 장학금 수혜 학생들을 격려했다.

기춘호 기장 정년퇴임식 거행



영업관리팀 물류2반 기춘호 기장의 정년퇴임식이 4월 18일 정관공장 교육장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1987년 성우금속 사이드멤버반에 입사한 후 26년간 당사에서 근무한 기춘호 기장에게는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재직기념패와 퇴직격려금이 전달되었고, 성우가족들에게 재직 기간 동안 느꼈던 소회를 밝히는 감동의 시간이 이어졌다. 김태일 대표이사 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을텐데 참고 견뎌내었기에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고, 오늘날 우리 성우하이텍이라는 역사를 함께 만들 수 있었다"며 노고를 위로하였다.

김건식, 남정희 기장 정년퇴임식 거행



4월 30일 서창공장 대강당에서 정년을 맞은 프레스가공반 김건식 기장과 코일가공반 남정희 기장의 정년퇴임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김태일 대표이사 사장은 이날 정년퇴임식을 가진 프레스가공반 김건식 기장과 코일가공반 남정희 기장을 성우가족에게 소개하면서 회사 설립 초기의 여러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함께 근무했던 에피소드를 직접 전한 후, 항상 숭선수범과 도전정신을 보여준 두 선배 사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건식 기장과 남정희 기장은 당사의 '정년 퇴직자 재고용 제도'를 통해 성우가족들과 함께 근무하며 기술과 경험을 나누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2014년도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취득



2014년도 부산시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이 5월 15일 부산광역시청에서 개최되었다. 지역경제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우수기업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부산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공고 및 접수수를 하여, 4월 평가위원회 개최와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성우하이텍(대기업 부문)을 포함하여 총 25개사가 선정되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이날 축하사에서 '부산 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고용우수기업의 공로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현대자동차그룹 차체협력사 금형관리 우수사례 발표



당사는 현대자동차그룹 차체부품개발2팀이 선정한 금형품질관리 우수 협력사로서 5월 16일 40개 협력사를 초청하여 서창공장에서 금형관리 프로세스 및 품질 안정화 활동을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금형품질 및 관리역량 제고를 위한 금형 품질관리 점검 프로세스와 금형 합동 점검 절차를 협력사들과 공유했고, 금형관리 전산화, 예방점검 프로세스, 세척 및 도금관리에 대한 사례 발표와 프레스라인의 현장 시연을 진행했다. 성우하이텍은 신차 개발부터 양산 및 금형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시간 이력관리 함으로써 차체 부품의 품질 경쟁력 향상에 일조하는 기업이 될 것이다.

성우몰드 장산 등반대회



성우몰드 산사모(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는 지난 5월 24일 해운대 장산 일대에서 발대식과 함께 첫 산행을 가졌다. 40여 명의 성우몰드 가족들은 오전 9시 대천공원을 출발하여 옥류봉과 중봉을 거쳐 장산 정상에 오른 후 억새밭을 따라 내려오는 4시간 남짓의 등반을 하며 초록빛 자연을 함께 나누는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명근 회장과 대청공원에서 조우한 산사모 회원들은 함께 점심을 나누며 발대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아산성우하이텍, “고용노동부장관기 전국 직장인 족구대회” 준우승



아산성우하이텍이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당진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8회 고용노동부장관기 전국 직장인 족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국민생활체육 전국 족구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당진시가 후원한 전국 직장인 족구대회는 직장인들의 체육 여가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는데, 올해에는 총 8개부 171팀 1,300여 명이 참가했다. 아산성우하이텍 사내 동호회인 '아산성우 족구단'은 전국대회 첫 도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실력을 선보이며 준우승을 차지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영산대학교 교육실습용 기자재 기증



당사는 4월 22일 영산대학교(총장 부구욱) 그린자동차학과에 교육실습용 기자재를 기증했다. 김태일 대표이사 사장은 기증서 체결에 앞서 '한국자동차 산업과 성우하이텍'이라는 주제로 영산대학교 재학생들에게 특강을 진행하였다. 금번 영산대학교에 기증한 교육실습용 기자재는 당사의 체코법인에서 생산했던 KIA 슬로바키아의 ED 5DR로 씨드(Ceed)라는 유럽형 준중형 5도어 해치백 차량의 차체다. 김태일 대표이사 사장은 특강에서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고민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올바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갖추어야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2014 부산 슈퍼컵 국제요트대회 개최



성우하이텍이 후원하고 부산광역시요트협회가 주관한 2014 부산 슈퍼컵 국제요트대회(2014 BUSAN Super Cup International Yacht Race)가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수영만 요트경기장과 해운대 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열렸다. 총 4차례의 레이스를 펼친 이번 대회에서 '색시 부산'은 ORC 클래스에서 2년 만에 다시 우승컵을 안았고, 오픈 클래스에서는 처녀 출전한 아프로만이 1위를 차지했다. 김태일 부산광역시요트협회 회장은 “더 많은 시민들이 보다 쉽게 요트를 접할 수 있도록 요트학교를 활성화함으로써 'Sailing City Busan'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동남권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선포식 참석



김태일 대표이사 사장은 5월 20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주최한 '동남권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선포식'에 참석하여 일과 삶의 행복을 위한 다짐에 동참하였다. 이번 '일·가·양' 행사는 2014년을 '일하는 방식과 문화 개선'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국민들이 직장가 가정에서 보다 알차고 행복한 삶이 가능하도록 정부·기업·NGO 등이 자신의 역할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자리였다. 당사는 일과 삶의 균형이 조직과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발전으로 선순환 되는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모범이 되고자, 일터혁신과 스마트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한국은행 신입직원 방문



2014년도 한국은행 신입직원들은 1월 21일 당사를 방문하여 자동차부품산업 현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 시청사 기업홍보관 참여



당사는 1월 24일 개관한 '부산 시청사 기업홍보관'에 세계일류상품으로 인증 받은 '고인성 알루미늄 적용 차체 프론트 사이드멤버' 등을 전시하였다.

현대파워텍 해피파워협의회 방문



노사문화대상 대기업부문 대통령상을 수상(2012년)한 성우하이텍의 노사문화 벤치마킹을 위해 3월 17일 현대파워텍 해피파워협의회 28명이 방문하였다.

찾아가는 현장고용포럼 개최



부산고용포럼과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주관한 '2014년 제1회 찾아가는 현장 고용포럼'이 5월 9일 서창공장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되었다.

포스코 중견기업육성 E-MBA 교육생 방문



포스코 HR실 미래창조아카데미에서 추진한 '중견기업육성 E-MBA과정' 교육 생 일행이 5월 22일 당사를 방문하였다.

2014 부산 청년 일자리 주간 행사 참여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인 당사는 부산 지역 고용활성화 및 청년 창업 정보 제공을 위해 '2014 부산 청년 일자리 주간' 행사에 참여했다.

성우인과 함께하는 연간 캠페인!

SAVE ENERGY

SAVE EARTH



여러분은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는 자신만의 에너지절약 규칙이 있나요? 건강은 물론 환경까지 생각하는 로하스(LOHAS,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세계는 에너지절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은 지구환경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에너지소비와 환경오염 역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지구가 청정상태를 유지해야 인간의 수명도 연장됩니다. 병들어 가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 큰 계획을 세우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헛일입니다. 차라리 그보다는 작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혼자 계획을 세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SAVE ENERGY, SAVE EARTH' 캠페인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요일별 SAVE ENERGY 전략!

하루에 딱 하나씩만!

에너지절약 실천방법들이 너무 많나요? 그래서 엄두가 나지 않으신다고요?

그렇다면 하루에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다. 성공적인 결과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Monday

종이컵 대신 개인 텀블러 사용하기

직장인 평균 1인당 하루 약 2~3개의 종이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종이컵은 연간 약 120억 개, 이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서는 4,727그루의 나무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아세요? 다 쓴 종이컵 하나가 땅속에서 분해되기까지 무려 20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어요. 그런데도 굳은 결심으로 텀블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도 막상 편리한 종이컵이 눈앞에 보이면 그 유혹을 뿌리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월요일만이라도 텀블러를 사용해봅시다.



Tuesday

점심식사 후 양치질 하세요?

한국의 1인당 물 사용량은 하루에 약 400ℓ입니다. 양치질을 할 때 아무렇지 않게 물을 틀어 놓는 분들 뜨끔하셨을 겁니다. 양치할 때 컵에 물을 받아서 사용할 경우 수도꼭지를 열어 놓은 것에 비해 약 5ℓ의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실천방법이라도 실제로 절약하면서 생활하기는 어려운 일이지요. 지금까지 '물을 물 쓰듯' 했다면 '물을 돈 쓰듯' 해봅시다.

Wednesday

계단 다이어트! 에너지 절약도 함께!

하루 업무를 마치면 녹초가 되어 운동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맞춤 운동인 계단 다이어트를 시작해보세요. 무심코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를 3층 이하에 사용하는 것만 자체로도 운행 횟수의 약 20%를 줄일 수 있고, 월간 300kWh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3층 이하는 운동하는 마음으로 걸어서 올라가는 것은 어떠세요? 계단 한 칸 오를 때마다 0.15kcal가 소모되고, 수명은 4초간 연장됩니다. 그러다 보면 매년 열리는 환경마라톤에서 1등을 차지하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Thursday

퇴근 후 드라이브는 에코드라이빙이 답!

에코드라이브(ECO-DRIVE)란 한 마디로 자연친화적인 운전을 말합니다. 에코드라이빙으로 연료를 20%정도 절감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어들어 경제와 환경을 챙길 수 있으니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 첫째, 운전 시작 전 최적의 경로 확인을 생활화할 것!

아무리 인간 내비게이션이라도 불필요한 주행은 연비를 낭비합니다. 최적의 경로 확인만으로 14%의 연비가 절감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 둘째, 경제속도 준수!

시속 60~80km의 경제속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최대 6%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셋째, 신호대기 시 기어는 중립으로!

차가 1분 이상 정차하게 될 경우라면 변속 레버를 중립모드(N)에 놓으세요. 불필요한 연료소모를 최소화 합니다.

Friday

점심시간에는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점심시간에 컴퓨터 모니터를 끄는 것만으로도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모니터는 컴퓨터 전체 전력의 60~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가정용 전력으로 따져 보통 60W 형광등 3개를 켜놓은 것과 맞먹는다는군요. 그렇다면 화면 보호기를 설정해 놓으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저절로 화면이 꺼져 그만큼의 에너지를 아낄 수 있지 않을까요?

off



“세계 최강의 자동차 차체부품 Maker”

성우하이텍이 앞서갑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미래를 함께 합니다.

